

파수꾼의 리더

이사야 6:1-13

이현규 전도사

* 사6:1-13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려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머리가 되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장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거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리라 하라 하시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준공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주소서.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비전과 꿈을 꾸는 가운데 공동권을 장악할 이미지의 땅대, 해본리, 드론키, 이터널리의 실현이 응답되는 땅대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고 도전할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목사님께서는 현재 네덜란드 참빛교회 설립에배 후 유럽현장사역 중에 계시다. 이제 곧 9월 5일에 귀국하시는데 오시기까지 남은 여정과 일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유럽에 가지기 전에 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강단을 맡기 했다. 부족한 제가 썼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렘네티리터수련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 ‘렘네티리터수련회’의 전체 주제는 ‘파수꾼의 리더’이고,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파수꾼의 리더로, 모든 현장에 CVDIP의 절대대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기도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파수꾼’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하겠다. 성을 수비하고 적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성벽 위에 세운 높은 탑이 땅대인데, 파수꾼은 이 땅대에서 지키고 경계하는 자를 뜻한다. 어찌면 땅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파수꾼’일지 모른다. 현장에 땅대는 세워져 있지만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 없다면 적들에게 함락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파수꾼이 아닌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보이는 싸움이 아닌 악한 영, 곧 사탄과 마귀, 흑암세력과 싸움을 하는 것이다. 결국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깨어 있어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잠도 안자고, 졸지도 않고, 우는 사자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잠들면 결국 삼켜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1)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까지의 말씀이다. 지난 강단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24시 쉬지 않고 잠들지 않아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힘, 내 능력, 내 배경으로는 사탄과 1:1로 붙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내 문제에 항상 걸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싸웠다하면 무조건 이기고, 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을 지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다.

(2) 에스겔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다.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위급한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예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현장에 당장 영적인 비말을 몰라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이 잔리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3장 18절에서 19절에 그 핏 값을 내게 묻겠다고 말씀하신다. 현장에 위급하고, 갈급한 자가 너무 많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흑암을 막는 빛을 비추는 자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현장은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란다.

(4) 네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전에는 흑암 가운데 빛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이 빛(창조의 빛, 근원적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배성,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할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 2003년 1월 겨울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저는 일병이었고, 고참과 함께 보초근무를 나가게 되었다. 일명 ‘17 초소’라고 불리는 막사에서 가장 멀고, 산을 타고 20~30분을 올라가야 하는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험한 코스였다. 주간근무였는데 이제 올라가서 고참은 잠을 자면서 저에게 잘 지키라고 했고, 저는 잠은 안 잤지만 날이 추워서 방한모자를 꼭 눌러쓰고 서성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났는데 코앞에 누가 딱 서 있는 것이었다.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보니 당직사관이었다. 보통 잘 안 올라오는데 그날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다. 안에 자고 있던 고참도 깨우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관은 내려갔는데 이제 ‘최소 영장 10일짜리다. 근일 냐다. 군생활 늘었구나.’ 이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보초의 역할,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근무를 마치고 내려가니 그 사관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것이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며터면 군생활이 꼬일 뻔 했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어느 날, 티비를 보니 그 사관이 나오는 것이었다. 현재는 ‘김정근 아나운서’이다. 이 분은 장교로, 저는 사병으로 복무했었다. 요점은 이처럼 졸지 말고, 근무태만하지 말고 현장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문은 CVDIP의 땅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1. 첫 번째로 Covenant 24 땅대이다. 지금 교회는 불신자에게 완전히 밀리고, 3단체에게 완전히 지고 있다. 이런 일은 이전 시대 시대마다 있었고, 그때마다 재앙이 왔다. 하지만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램네티를 남겨두시고 숨겨두시고 램네티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Covenant 24 땅대’를 찾아내야 하겠다. 즉,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는 능력도 무한대이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해야 한다. 이것을 못 붙잡으면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성령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1) 내 삶과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24 땅대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 완전히 24되어지는 리듬 속에 있으면 그것이 24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적상태를 회복할 가장 행복한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을 찾아야 하겠다. 이 시간이 기도 24의 시간인데 가장 조용하고 나를 다스리는 시간, 치유하고 힘을 얻고 초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다. 이 힘을 누리다 보면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5기도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이다.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③ 3시대 살릴 능력을 누리는 기도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3시대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④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⑤ 하나님께서 주시는 5력을 누리는 기도이다. “다섯 가지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체력의 힘, 경제력의 힘, 인력을 움직이는 제자의 힘을 주옵소서.” 이것은 단지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는 체험을 누리시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집중하고 누릴 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땅대이다.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플렉스, 파수장대,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 '파수꾼의 되게 하소서'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땅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0 장 4 절에서 5 절에는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의 이론과 생각, 교만도 무너져 곧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케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하나님의 땅대를 굳게 세우고 파수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3) 일상생활 속에서 반대편의 답을 보고 불집기를 바란다. 우리는 될 때보다 잘 안 되어질 때가 많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란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대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애굽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결국 왕 앞에 섰고, 애굽복음화 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 히브리서 11 장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반대편의 답을 보았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약을 따라 예비해 두신 정확한 반대편의 답을 보게 되시기를 기도드린다.

2. 두 번째는 Vision 25 의 땅대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24 를 누리고 있으면 25 땅대가 세워진다. 25 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보게 되면 신분에 따라 권세가 나오게 된다. 요한복음 1 장 12 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 신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처분된다.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공급해 주신다.

(1)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야 한다. ①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3 장 13 절에서 15 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27 장 24 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항해하는 자를 붙여주겠노라" 약속하셨다. 이사야 7 장 14 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②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 장 19 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무엘상 16 장 23 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다. ③ 천사를 파송하는 권세를 주셨다. 시편 103 편 20 절에서 22 절에 다윗은 이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항상 누렸다. ④ 기도응답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4 장 14 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⑤ 빌립보서 3 장 21 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어머니마한 권세가 있다. 그래서 모든 흑암,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과 치유와 힘과 권세가 있다.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 되신다.

(2) 성경 속 램넛트와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이 이 권세를 누렸다. ① 하나님께서 램넛트에게 주신 권세는 최고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능력이다. 이들은 이것으로 비전 25 땅대를 곳곳에 세웠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여저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도단성운동을 이끌었다. ② 초대교회가 누린 권세는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다. 이 권세로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사마리아에 빛을 비쳤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린 자를 치유했다. ③ 바울이 누린 권세는 자신이 첫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성령인도를 따라 두란노운동 이전에 답을 얻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 회당으로 파고 들었다.

(3) 우리는 더 큰 땅대를 세워 이 시대의 왕과 강대국 앞에 서야 한다. 왕과 강대국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 237 과 5 천 종족과 TCK 가 다 있기 때문이다. 모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살려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야 하겠다.

3. 세 번째로 24, 25, 영원의 Dream 땅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Dream 은 24, 25, 영원 속에서 나와야 한다. 틀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것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꿈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영원 속에 있는 꿈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오늘 속에서 우리는 한 없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영원과 나의 평생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보면 답이 빨리 나오고 힘이 생기게 된다.

(1)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영원한 배경 속에서 나온다. 성경 속 7 명의 램넛트들의 꿈은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것이다. ① 요셉은 애굽복음화의 꿈을 꿔다. ② 모세는 출애굽의 꿈을 꿔다. ③ 사무엘과 다윗의 꿈은 블레셋을 막는 것이었다. ④ 엘리사의 꿈은 아람을 통한 세계복음화였다. ⑤ 이사야가 말한 중요한 꿈은 이사야 6 장 13 절의 램넛트였다. ⑥ 마지막에 성취될 꿈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라'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

(2) 결국 모든 것이 꿈을 이루게 된다. 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여호수아와 갈렘을 통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② 바벨론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살렸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다고 결단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민족을 살렸다. ③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확실한 꿈을 붙잡았다.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법정에 서도 상관없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풍랑 만나도 괜찮다). 이처럼 모든 램넛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다면 끝난 것이다.

(3) 강대국과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된 근성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램넛트는 가문과 교회와 국가를 살릴 주역이다. 다시는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강대

국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하겠다. 출애굽을 해도 몸만 빠져나오고 체질, 옛 습성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빠져나왔다고 할 수 없다. 안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노예, 포로, 속국된 근성에서 빠져 나오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램넛트가 이 상태에서 빠져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으면 가문과 교회와 국가를 살릴 수 있다.

4. 네 번째는 공중권세를 장악할 Image 땅대이다. 에베소서 2 장 2 절에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메타버시티대는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 신출귀몰한 이상신전을 세우고, 전쟁국기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메타버시티대가 왔다. 지금도 공중권세를 붙잡은 자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재앙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유니버시티대를 장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브리, 드론리, 이터널리 파워와 달란트이다. ① 요셉은 창세기 37 장 1 절에서 11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통해 언약을 붙잡았다. ② 모세는 하나님의 열 가지 기적을 통해 시공간초월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 ③ 사무엘은 미스바운동을 통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우주를 초월한 힘을 누렸다. ④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들과 ⑤ 갈보리 산의 예언된 사건,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라병의 능력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회당에 들어갈 때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릴 것이다. 바울이 램넛트와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계속 파고 들었던 것이다.

5. 마지막 다섯 번째 Practice 의 땅대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Heavenly · Thronely · Eternally 의 Practice 땅대이다. 하늘에서, 보좌에서, 영원에서 나오는 Practice 의 땅대를 세워야 하겠다. Heavenly · Thronely · Eternally Power 를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 세 가지 달란트를 주실 것인데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①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게 하셨다. 전 세계에 쌀을 파니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인 것이다. 흉년 때 쌀을 비축해 놓았다가 흉년 때 값을 더 없어서 팔 수 있었다. ② 모세는 세 절기와 언약케, 성막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막중심으로 언약케를 모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 ③ 다윗은 1 천 땅대를 세우고 성전 만들 준비를 했는데 이 언약으로 빛의 경제를 누렸다. ④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를 누리야 하겠다. 전도와 선교, 전 세계의 흑암과 재앙을 막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는 CVDIP, 이 다섯 땅대는 결국 '기도의 땅대'를 뜻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땅대를 먼저 세우게 되시기를 바란다. 하루에 단, 5 분만 집중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5 분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다. 나의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치유되고 힘을 얻고 나를 초월하는 시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기도드린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기도의 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탑은 무너져도 기도의 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다윗이 홀로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기도의 힘을 모든 성도분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누리길 바란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날마다 정시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 아침과 낮과 밤으로 기도드렸다.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영원에 남길 작품이 있다.

(1) 갈보리 산, 감람산, 마가다라병에 대한 세계작품을 만들어야 하겠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감람산에서 40 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마가다라병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 이 일들은 2 천 년 전에 일어난 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언약을 정확히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되시길 바란다.

(2) 세 가지 딸이다. 세 가지 딸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겠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딸이다. 아픈 자, 병든 자, 위급하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올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딸, 미래를 치유할 아이들의 딸, 이 세 가지 딸을 두고 기도의 땅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란다.

(3)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이다.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기도로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가 끝나면 기도문과 이미지로 본문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럼으로 남기도 한다. 나의 현장 가운데 이 세 가지 작품은 영원 속에 남는 작품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삼중직을 전달할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램넛트가 되시기를 기도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언약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론리 파워와 드론리 달란트와 드론리 미션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참사랑 모든 성도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CVDIP 기도의 땅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